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9호 [루계 제2583호]

주제 109
(2020)년 2월
29일
토요일
음력 2월 6일

절세위인의 향도 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인류의 리상향, 참다운 인민의 세상

조선 방문한 외국인들속에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에 대한 찬탄의 목소리가 계속 울려나오고 있다.
라오스조선친선협회대표단 단장 썬 노이마니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방문의 나날 체험한 모든 것이 정말 놀랍기만 하다.
평범한 인민들이 나라의 혜택 속에 참다운 삶을 향유하고 있다. 이 나라에서는 부익부, 빈익빈과 같은 심각한 사회적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조선에서는 근로자들의 건강과 물질문화생활이 국가적관심사로, 제일중대사로 되고있으며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부무하고있다.
체류기간 평양산원에서 걸진을 받은 파키스탄친선대표단 단원 쎬에다 우르피 파르마는 다른 나라들에서는 비용이 너무도

엄청나기때문에 일반사람들은 불임치료에 대해 생각지도 못한 다. 근로인민을 위해 실시되고있는 조선의 훌륭한 시책들은 나를 크게 감동시켰다. 사람의 생명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조선의 현실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진정성을 토로하였다.
영국주제사상연구소 위원장 더트 하드슨은 이렇게 말하였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 대한 참관을 통하여 조선의 인민적진제도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었다. 놀라운것은 종업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있는 여성근로자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공장에 꾸러진 탁아소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노동생활을 하고있는것이였다.
여성근로자들의 생활문제에 이르기까지 따듯이 보살펴주는 조선

과 같은 나라를 나는 알지 못한다. 로씨야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근로인민모두가 희망과 소회에 따라 배우고 일하며 아무런 근심없이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조선에서는 인민이 향유할 모든 권리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는것을 정치의 근본으로, 어길수 없는 국책으로 하고있다.
수십년간 지속되는 극악한 제재와 봉쇄속에서도 인민적시책들이 계속 실시되고있는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다.
사회주의조선은 진정한 인민의 세상, 인민의 나라이다.
로씨야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대표단 단원 바베 안도브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서방의 출판보도물들은 조선이 락후하고 사람들도 절망에 빠져 있다고 선전하는데 실제로 평양의 와보니 거리들은 깨끗하고 질서정연하며 인민들모두가 생기와 활력에 넘쳐 생활하고있다.
하나의 창조물을 일떠세워도 언제나 인민의 리익을 앞에 놓고 편의를 최대로 보장해주는 원칙에서 모든것이 꾸러지고 운영되고있는것이 참다운 인민의 세상인 조선의 현실이다.
근로인민대중이 사회의 주인, 참다운 문명의 향유자로 되고있는 조선이야말로 인류의 리상향이다.
인민을 위함이라면 저 하늘의 별도 따오시려는 김정은동지를 최고령도자로 모신 조선인민은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

울것이다.
베네수엘라통일사회주의당 청년 전족지도부대표단 단원 란테르 베나는 중앙동물원을 돌아보며 인민적정치가 펼쳐지는 조선의 현실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조선의 위대한 수령들께서 중앙동물원을 자주 찾으시어 인민의 훌륭한 문화휴식장소로 꾸려주시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인민들에게 더 좋고 훌륭한 문화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이토록 세심한 관심을 돌리신 위인들은 동서고금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오직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는 결출한 수령들을 모신 조선에서만 있을수 있는 현실이다.
본시기자

3월 1일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사에 빛나는 장을 아로새긴 3.1인민봉기 101돌이 되는 날이다.
이날이 다가올수록 우리 겨레는 강도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맞서 조선독립을 목청껏 외쳤던 선렬들의 넋을 다시금 되새기고있다.
돌이켜보면 3.1인민봉기는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전민족적인 반일애국항쟁이였다.
지난 세기초 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한 일제는 중세기적인 파쇼통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무참히 짓밟고 조선인민에게 비참한 노예의 운명을 강요하였다.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통치밑에서 모진 수모와 학대를 받아온 우리 민족은 쌓이고쌓인 울분과 원한을 1919년 3월 1일 전민족적인 반일항쟁으로 폭발시켰다. 평양에서 타오른 반일독립투쟁의 불길은 삼시에 전국의 13개 도를 모두 휩쓸었으며 만주와 상해, 연해주, 하와이 등 해외 조선인거주지역들까지 파급되어 전민족적인 항쟁으로 번져갔다. 봉기자들은 《조선독립 만세!》, 《일본인과 일본군대는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일제군경의 야수적인 총칼탄압에 굴함없이 맞서 싸웠다.
3.1인민봉기는 외세의 지배와 폭압통치를 용납치 않고 그에 목숨바쳐 항거하는 조선민족의 높은 자주정신과 애국적기개, 불굴의 의지를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또한 봉기는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 조선을 인민의 민족적각성을 높여주었으며 세계피압박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에 커다란 고무적영향을 주었다.
3.1인민봉기가 있는 때로부터 온근 한세기가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들춰온 일본은 그 엄청난 죄악에 대해 성근하게

너우치고 사죄배상할 대신 침략력사를 외곡하고 조선에 대한 군사적재침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있다.
은 겨레는 민족자주의식을 품는 사대와 외세의존을 철저히 반대배격하여야 한다.
지금 남조선당국은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불행과 고통, 재난을 들춰온 일본과의 《관계개선》과 《협력》을 떠들며 비굴하게 놀아내고있다.
은 겨레가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며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는 수치스러운 사대매국위들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외세에 아부하여 동족대결에서 살길을 찾는 남조선보수적계급의 발악적책동을 단호히 짓부서버려야 한다.
외세의 침략책동과 그에 추종하면서 민족의 자주권과 리익을 해치는 범죄적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고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은 겨레는 하나로 굳게 뭉쳐 외세의 흉악한 침략야망과 모험적인 전쟁도발책동에 준엄한 철수를 내려야 하며 외세를 등에 업고 그와 공모하여 민족을 반역하는 침략의 앞잡이들의 매국역적행위를 폭로단죄하고 력사의 반동들을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또한 과거력사를 외곡하며 굴의 의지를 남김없이 과시하였는 일본반동들의 범죄적책동들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전체 조선민족은 반외세, 민족자주의 기치높이 조국통일운동을 보다 힘차게 벌려나감으로써 자주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거머쥐어 성취하고야말것이다.
신기복

3.1의 메아리가 어김없이 울려나온다

조국소식

새 학년도 신입생들을 위한 가방천생산 결속

—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새 학년도 가방천생산을 결속하였다.
새 세대들을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희망과 미래의 전부로 내세우는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후대관을 심장으로 새 학년도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전인발발의 중앙운동, 창조운동을 과감히 전개하였다.
공장에서는 제품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는 문제가 후대들에게 자기의것에 대한 자부심을 키워주는데서 선차적인 사업으로 나선다는 관점을 지니고 선철후량의 원칙에서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작업반별, 개인별질제고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교대가 교대를 도와주며 기쁨이 신입공을 도와주는 미풍이 발양되는 속에 일생산실적이 련일 높아갔다. 본시기자



애국의 마음안고 증산철약을 위해 노력한다. — 평양326전선종합공장에서 —

시평 200번째 향의 집회

지난 21일 도교 문부과학성에서는 유보무상화에서의 조선유치반 배제를 비롯한 일본당국의 민족교육말살책동을 반대배격하고 민족교육의 권리를 옹호고수하기 위한 대중적인 향의행동이 열렸다.
이 시위투쟁은 2013년 이후 조선대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중심이 되어 증단없이 벌려온 문부과학성안 금요항의행동 200번째 투쟁의 날에 즈음하여 조직진행되였다.
시위투쟁에 참가한 총련중앙일군들과 학생대표들, 학부모 그리고 조선유치반의 유보무상화적용을 요구하는 일본의 각계 인사들은 아베정권의 용납 못할 민족교육말살책동을 결렬히 단죄규탄하고 민족교육의 권리를 즉시 보장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일본당국의 민족교육말살책동은 향의집회가 200번째로 열리도록 조금도 달라진것이 없어 제일조선인들의 분노를 사고있다. 일본의 맹혹하고 철면피한 조선민족차별책동이 얼마나 집요하고 뿌리깊은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이다.
제일조선학생들은 지난날 일제에 의해 강제로 일본땅에 끌려간 조선사람들의 후손들이며 그들이 공부하는 학교는 일본당국의 합법적인 승인밑에 운영되는 민족교육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당국이 조선고급학교 학생들을 고교무상화제도에서 제외시킨것은 로폭적인

민족차별과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의 또다른 표현이다. 지난해에는 조선유치반 원아들까지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에서 배제하는 반인륜적책동을 저질렀다.
이것은 자라나는 조선인 새 세대들에게서 민족성을 빼앗고 일본에 동화시키기 위한 책동에 다른것이 아니다.
과거 일제는 40여년간이나 조선을 강점하고 우리 민족에게 이루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들쳐냈으며 우리의 말과 글, 지어 쓰까지 빼앗으며 조선민족을 말살해버리려고 갖은 비열하고 악랄한 책동을 다하였다. 조선민족앞에 씻을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일본이 그에 대해 사죄와 배상을 하

기는 고사하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에 계속 매달리면서 제일조선인들에 대한 민족차별책동에 매달리고있는것은 죄악우에 죄악을 덧쌓는 범죄행위가 아닐수 없다.
오늘 일본이 세상사람들로부터 《정치난쟁이》, 《반인륜범죄자》, 《력사의식이라고는 꼬물만 큼도 없는 나라》라는 비난과 규탄의 대상이 되고있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한것이다.
일본당국이 반공화국망동과 민족차별책동에 매여달릴수록 조선민족에게 치러야 할 대가 역시 그만큼 커지게 된다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본시기자 박철남

◆공화국에서 3월 2일은 식수절이다. 주제 35(1946)년 3월 2일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과 함께 모란봉에 오르신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의 나날 그러보시던 아름다운 모란봉이 일제침략자들의 흑심한 식민지락탈로 황폐화되었

을 보시고 못내 가슴아파하시며 나무와 꽃을 많이 심어 모란봉을 풍치수려한 인민의 유원지로 꾸리는데 대하여 교시하시면서 파괴된 전국의 산림과 경치를 아름답게 가꿀 웅대한 구상을 펼쳐주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날에 하신 교시는 자주독립국가건설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에게 식수사업의 첫 봉화를 지펴준 력사적계기로, 조국망을 푸른 숲 우거진 락

원이 전변시키는 전환의 계기로 되었다. 공화국에서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후손만대 길이 전하며 나무심기

인민이 떨쳐나서 산과 들에 나무를 정성껏 심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온 나라에 산림복구전투의 불길을 지펴주신 후 조국의 산들이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기 위한 식수사업이 더욱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지난해에만도 평양에서는 봄철나무심기가 시작된 때로부터 불과 열흘 남짓한 기간 30여종에 수만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와 꽃나무를 심었다. 조선의 국수인 소나무만도 전국적으로 수백만그루나 심어졌다고 한다. ◆내 나라, 내 조국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까지도 다 자기 가슴에 품어안고 자기의 더운 피로 뜨겁게 덥혀주는 참다운 애국주의가 김정일에국주의이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인 김정일에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사는 공화국인민들이 있기에 국토의 모습은 해마다 더욱 푸르게 단장되어가고있다.



◆공화국에서 3월 2일은 식수절이다. 주제 35(1946)년 3월 2일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과 함께 모란봉에 오르신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의 나날 그러보시던 아름다운 모란봉이 일제침략자들의 흑심한 식민지락탈로 황폐화되었

인민의 밝은 모습은 나라의 모습

공화국은 인민을 나라의 근원으로, 사회주의의 기초로 하고있는 인민대중중심의 나라이다.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이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 국가이다.

인민들의 생명보호와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보건사업 역시 그러하다.

일찌기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밝히신것처럼 공화국의 사회주의보건은 인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며 모든 근로자들이 무병장수하여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는것을 사명으로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앓을 때 치료하는것이 아니라 사전에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는 보건이다. 말하자면 예방의학이다.

최근 세계적범위로 전파되어 사람들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고있는 《COVID-19》에 대비하여 공화국은 국가적비상방역체계를 세우고 모든 부분, 모든 지역, 모든 기관들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검역, 검병사업을 일사불란하게 하고있다. 국가적조치에 따라 매 개인, 세대들로부터 전국적범위에서 전체 인민이 감염증방역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공화국에서는 국가부담에 의한 전방적무상치료제가 실시되고있다. 대상과 지

역, 의료봉사의 범위에 한하여 공민모두를 대상으로 모든 형태의 의료상방조를 무상으로 하고있다.

병원, 진료소를 비롯한 모든 보건기관들과 의료시설들을 국가가 관리운영하고있으며 부담이 크더라도 보건부문에 대한 투자를 줄임없이 확대하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처럼 인간의 생명과 건강보다 돈을 우위에 놓는 보건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가장 철저한 인민적인 보건제도이다.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시며 인민들에게 유숙하고 문명한 생활이 차례지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정치는 사회주의 보건분야에도 뜨겁게 미치고 있다.

그이께서는 현대적인 의료봉사기지를 건설하는것과 함께 인민들이 좋은 의료봉사를 받도록 하며 나라의 보건을 가장 우월하고 인민적이며 선진적인 보건으로 발전시키는데 크나큰 로고와 실혈을 기울이신다.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 유육아동병원, 류경치과병원들은 다 그이의 숭고한 인민사랑과 깊은 관심속에 건설된 의료봉사기지들이다.

한해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건설된 류경안과종합병

원에도 친히 설계가, 시공자가 되시어 건설에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체적인 지도와 세심한 보살핌이 깃들어 있다.

안과종합병원건설을 구상하신 그이께서는 손수 부지도를 정하여주시고 여러차례 형성안도 지도하시며 건설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건설현장을 찾으시였을 때에는 류경안과종합병원은 안과질환을 치료하는 의료기술과 함께 안경교정과 제작을 비롯한 안경봉사기능을 갖춘 종합적이고 다기능적인 의료봉사기지라고 하시며 건축에서 선련리성과 선미학성을 철저히 구현하도록 할데 대하여 이르시었다.

병원건설이 완공되었을 때에도 다시금 찾으시시고 류경안과종합병원은 우리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볼수 있는 인민의 병원이라고, 우리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보면서 좋아할 모습을 그려보니 정말 기쁘다고 하시었다.

병에 대한 근심이나 치료걱정을 모르고 마음껏 의료봉사를 받을 인민들의 밝은 모습에서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 나라의 모습을 그려 보시었기에 그이께서는 기쁨을 금치 못해하신것이였다.

몇해전에 새로 건설된 보건산소공장을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기와 지도밑에 건설되어 병원들에서 요구하는 위생안전성이 철저히 보장된 질좋은 산소를 생산보장하고있다.

부지로부터 설계와 시공, 관리운영 등 모든것이 그이의 구상과 의도에 따라 이루어진것이고 인민이라는 두 글자와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는 인민적인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의료용산소공장이다.

건설하여 밝고 활기에 넘쳐 생활할 인민들의 환한 모습에서 사회주의제도의 모습을 완곡된 산소공장을 현지지도 하시면서 보건은 사회주의영상이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의 상징이라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보건부분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갖추기 위한 방도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의료용소모품 하나도 인민의 생명과 건강증진과 관련된것인것으로서 그이께서는 평양치과위생용품공장을 돌아보시면서다 사회주의영상을 빛내는 데서 보건부문이 일떠서야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혜택을 더 잘 누릴수 있다고 강조하시었다.

사람들은 건강하고 무병장수하여야 정치생활, 경제생활, 문화생활을 비롯한 모든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된다. 사람들이 병약하

면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된다. 얼굴에 그들이 지고 사회의 모습도 흐려지게 될것이다.

병치료와 예방에 대한 보건제도의 해력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은 병에 대한 근심걱정을 모르고 건강한 몸으로 생활하며 사회활동을 할수 있다. 밝은 그 모습이 그대로 사회의 모습으로 되는것이다.

보건을 사회주의영상,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의 상징이라고 하시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에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보호증진을 위하여 보건사업에 대한 국가적관심을 높이고 인민적시책을 높이도록 크나큰 실혈을 기울이시는 숭고한 인민사랑의 세계가 어려웠다.

보건사업을 발전시켜 인구의 평균수명과 전염병예방을 비롯한 보건지표들을 세계선진수준에 올려서우며 인민들에게 보다 위생문화적인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하여주도록 하는 문제로부터 의료봉사의 질을 개선하며 의학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보건부분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개선하는 문제에서 이르기까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기울이시는 심혈과 로고는 끝이 없다.

인민보건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고에 의하여 공화국의 의료봉사와 보건제도는 더욱 개선되고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적극 도모하고있다.

홍은주

이민위천의 숭고한 뜻 받들어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한평생은 가장 순결하고 뜨거운 인민 사랑의 한평생이었다.

돌이켜보면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시려 눈비오는 험한 길을 많이도 걸으시고 인민의 운명을 지켜 보진 광풍을 다 막아나시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시다.

오로지 사랑하는 인민을 위하여!

이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한평생의 전부였다.

그이의 애민헌신의 자욱은 인민을 위해 일떠세울수 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에도, 이 나라의 도시와 농촌, 산간벽지와 외진 섬마을에 이르기까지 인민들이 사는 곳 어디에나 어려웠다.

오늘도 이 땅의 어디서나 볼수 있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에도 절세인민의 한평생이 응축되어있다.

나라앞에 준엄한 시련이 닥쳐왔던 지난 세기 90년대에도 시련을 겪는 인민들을 생각하시며 고난의 광풍을 기어이 물리치고 이 땅우에 하루빨리 부강조국을 일떠세울 역적의 신념을 가다듬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그이의 불굴의 의지와

헌신적인 로고속에 인민의 보급자리가 지켰었고 더욱 따뜻해졌으며 인민의 행복은 날로 커가고 존엄은 더 높이 떨쳐지게 되었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들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이 장군님께서 지니고계신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이고 의지였다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언제나 마음속에 사랑하는 인민을 안으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생을 초월처럼 태우신 아버지장군님의 천만로고는 세월이 흐르다 해도 잊을수 없다.

오늘 공화국의 인민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모습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자로운 영상을 뵈옵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인민사랑의 역사를 변함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자연에는 사계절이 있지만 인민에 대한 당의 사랑에는 사계절이 있을수 없다. 어려운 때일수록 인민생활에 첫 번째는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인민이 바라고 덕을 볼수 있는것이라면 천사만사를 제쳐놓고 달려들어 무조건 해야 한다.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의지이다.

몇년전 공화국의 북변땅에서 막대한 자연재해를 입었을 때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려병거리완공의 환희보다도 해지역 인민들의 새집들이 소식이 멎칠때마다 더 귀중하다는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뜻, 억만금을 쏟아부었다고 나라의 재부를 통째로 기울여서라도 이제 당장 들어달릴 엄혹한 강추위앞에서 피해지

역 인민들이 고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그 다심한 사랑의 손길에 받들려 행복의 보급차리들이 희한하게 일떠서 재해의 흔적을 말끔히 가시리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는 피해지역 아이들이 마음껏 웃고 떠들며 즐거운 나날을 보내는 전설같은 이야기도 태어나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에 의해 공화국에서는 인민의 꿈과 리상, 행복을 꽃피우기 위한 수많은 대건설사업들이 통이 크게, 놀라운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삼지연시가는 나라가 부러워하는 인민의 리상향으로 전변되고 경성공의 중평지구에 그 어디에 내올아도 손색없는 대규모의 남새온실농장과 현대적인 양묘장이 건설되었으며 양덕온천문화휴양지가 세계적인 온천치료봉사기지, 체육문화휴식기지로 훌륭히 일떠섰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함 정도와 애민헌신이 있어 것처럼 짧은 기간에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수많은 공장들과 몇쟁이거리들, 문화정서생활기지가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 달려들어 무조건 해야 한다.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의지이다.

몇년전 공화국의 북변땅에서 막대한 자연재해를 입었을 때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려병거리완공의 환희보다도 해지역 인민들의 새집들이 소식이 멎칠때마다 더 귀중하다는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뜻, 억만금을 쏟아부었다고 나라의 재부를 통째로 기울여서라도 이제 당장 들어달릴 엄혹한 강추위앞에서 피해지

김금화



양덕온천문화휴양지의 일부

다심한 사랑은 형성안들의 도

인민의 행복을 꽃피워주시려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크나큰 심혈과 로고의 세계는 수많은 형성안들에도 깃들여있다.

양덕온천문화휴양지를 가장 훌륭하게, 완벽하게 일떠세우시려 그이께서 지도해 주신 형성안은 무려 200여건에 달한다.

그 많은 형성안들을 보아주시고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니 휴식인들 제대로 하시였는가.

인민의 리상도시로 전변된 삼지연의 친지개벽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끝없는 사색과 심혈을 떠나 말할수 없다.

삼지연을 모든 면에서 현대적인 산간도시의 면모를 훌륭히 갖춘 본보기로 꾸리기 위하여 그이께서 지도하여 주신 형성안은

800여건이나 된다.

하나하나의 형성안을 보아주시니라 며칠밤을 꼬박 지새우셨는지, 어떻게 하면 자그마한 손색도 없이 일떠세우셨는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시었는지 아는 사람은 없다. 형성안을 보고 또 보아주시며 부족점을 바로잡아 주시고 소홀한 점을 찾아 몸소 수정도 해주시며 기울이신 그 로고는 인민들이 《물의 궁전》이라고 정답게 부르며 사시정찰 찾아가는 문수물놀이장에 뜨겁게 어려있으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아주시는 문수물놀이장 형성안도 113건에 달한다.

이런 강동길은 사연을 담고있는 이야기들을 다 전하 자면 끝이 없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지지도의 길에서 아이들의 모습을 오래도

록 지켜보신 일이 있었다. 아이들이 학교로 가고있었는데 한손에는 책가방을 들고 다른 손에는 악기와 소지품들까지 들고 가느라 불편하게 걸음을 옮기고있었다.

학생소년들의 모습을 눈여겨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배낭식가방을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시었다.

하여 그이께서는 해당 부문 일군에게 아이들에게 몇 수종물놀이장도 뜨겁게 어려있으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아주시는 문수물놀이장 형성안도 113건에 달한다. 이런 강동길은 사연을 담고있는 이야기들을 다 전하 자면 끝이 없다. 언젠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지지도의 길에서 아이들의 모습을 오래도

주셨다.

어느 하루한시도 그이의 사색속에 인민이 없었던것 같고 그이의 모든 명도의 자욱자욱은 오직 인민을 위한 사랑과 헌신의 로정인 것이었다.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은정속에 인민들의 웃음꽃은 만발하게 피어나고 있으며 이 땅은 더욱 아름답게 변모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아 주신 형성안수자는 단순히 수종로만 헤아릴수 없다. 그 형성안의 수자들속에 인민을 위하여하시는 그이의 헌신과 로고, 심혈과 사색의 세계가 깃들여있다. 백화만발한 인민의 행복의 화원을 가꾸어가는 위대한 령도자의 뜨거운 사랑이 깃들여있다.

본사기자 리경원



친지개벽된 산간문화도시 삼지연시

매혹과 흥미

위대한 애민의 정치가

참된 사랑은 인류가 오래전부터 갈구해온것이이다.

그러나 그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도 《사랑의 신》은 찾아볼수 없었다. 그래서 어느 한 나라의 물리학자는 필생의 탐구를 총화한 책에서 참된 사랑을 지닌 귀인을 찾아보려고 력사적인물들과 정치지도자들의 전기로 뒤졌고 자선가, 박애주의자들의 행적도 더듬었으며 종교인들의 세계에도 눈길을 돌려보았으나 모두 허사였다

고 하니 결국 자기가 바라던 《사랑의 신》은 아마도 이 세상에 존재할수 없는 하나의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썼다.

그 물리학자가 인민사랑의 정치가 펼쳐지는 공화국의 현실을 본다면 어떻게 말할것인가.

세인을 감동시키는 조선의 인민사랑의 정치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 계시기에 더욱 활짝 꽃피어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인민에 대한 사랑을 천봉으로 지니신 사랑에 대한 열사복무의 길을 끝없이 이어가시는 인민사랑의 정치가이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내에게는 장군님께서 말하고 가진 우리 인민이 장군님의 영상으로 안겨온다고, 나는 장군님을 모시듯이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일을 할

애나갔다는 생각뿐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는 것처럼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것이 인민에 대한 그이의 열사복무의 관점과 림장이다.

바로 이런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셨기에 그이께서는 하나의 로선과 정책을 내놓아도 인민을 위한 로선과 정책을 내놓으시고 한가지 일을 해도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기 위한 일을 하시었다.

몇해전 공화국의 북변 두만강연안에 들어닥쳤던 자연재해때 일을 사람들은 오늘날도 전설처럼 전하고있다.

갑자기 들이닥친 재앙으로 피해지역 인민들이 입은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였다.

그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북부지역에서 폭우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었다고, 몇달 지나지 않아 겨울이 닥쳐오겠는데 폭우로 한지에 내렸을 인민들을 빨리 안락시켜야 한다고, 령력을 집중하여 한달여간에 한지에 내렸을 인민들에게 살림집을 지어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당시 합차례 벌어지고있던 200일전투를 큰물피해복구에로 방향전환하도록 하는 중대조치를 취해주시었다.

억만금을 쏟아부었다고 나라의 재부를 통째로 기울여서라도 당장 들어달릴 엄혹한 강추위앞에서 피해지역 인민들이

고생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는 조선로동당의 인민사랑의 호소를 받들고 당시 려병거리건설에 동원되었던 건설자들은 물론 온 나라가 북부피해지역으로 달려갔다. 하여 폐허로 되었던 그곳에 아름다운 거리와 살림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섰고 인민들은 로동당단체의 합성을 우렁차게 떠쳐올렸었다.

지난해는 또 어떤가. 하늘 아래 첫 동태라 불리우는 삼지연에 현대문명이 응축된 웅근 하나의 도시가 일떠섰고 양덕땅에 특색있는 인민봉사기지인 온천문화휴양지가 가려져 찾아오는 휴양객들로 사람사태가 났으며 북변의 동해기슭 중평지구에는 대규모의 남새온실농장이 꾸러져 한겨울에 신선한 남새가 집집의 식탁우에 오르고 있다.

정명 공화국의 그 어디에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로고와 심혈이 깃들여지지 않았을 곳이 없다.

올해도도 그이께서는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시려고 순천리비료공장을 찾으시시는데도 현지지도의 첫 자욱을 새기셨다.

인민을 위한 그이의 사색은 그 깊이를 알수 없고 인민을 위해 바치시는 그이의 헌신의 자욱은 그 끝을 모른다.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하나 해놓으시면 그토록

기쁘시어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는 그이이다.

인민을 위한 길에 한알의 모래알이 되어 뿌려진대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 고결한 인생관을 지니시고 짧은 기간에 인민을 위한 거대한 업적을 이룩하시고도 오히려 언제나 늘 마음뿐이었고 능력이 모자라야 안갯마을과 자책속에 모래긴다고 위우시며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찾아갈 결심을 굳게 가다듬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의 중앙 70년력사를 돌이켜보는 영광의 단상에서도 볼래의 당,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일일신건원 위대한 조선인민단체를 금지높이 웨치시었다.

이란의 한 통신은 김정일최고령도자이사야말로 숭고한 인덕과 인민관을 지니신 애민형의 정치가이시라고 하면서 《그이께서는 활동의 대부분을 집무실에서 아니라 나라의 방방곡곡 인민들을 찾는것으로 보내시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군들에게 인민을 위해 열사복무할것을 강조하신다.》고 전하였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정치가 있어 공화국에서는 인민의 기쁨과 행복이 나날이 꽃피어가고있다.

본사기자 유금주



중평남새온실농장

태권도와 더불어 빛나는 삶

결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대성인인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해외에서 사는 동포들을 언제나 잊지 않으시고 따듯이 보살펴주고 참다운 애국의 길로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그 위대한 품에 안겨 인생의 전환을 하고 값있는 삶을 누리는 해외동포들중에는 조국통일상수상자인 전 국제태권도련맹 총재 최홍희선생도 있다.

1918년 11월 9일 함경북도 명천군 하가면(당시)의 작은 산골마을에서 태어난 그의 인생은 우리 민족의 정통무도인 태권도와 함께 걸어온 인생이었다.

선천적으로 너무나 작고 약해 집안의 걱정거리였다던 그가 민족의 녀고 기상이 어린 태권도를 세계에 떨친 애국적인 인사로 되기까지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다.

그러한 그의 인생이 민족이 알고 조국이 아는 빛나는 삶으로 되는데는 위대한 아버지의 품에 안겨 애국의 한길로 걸었기때문이라 해야 할 것이다.

최홍희선생이 처음으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만나본것은 주체81(1992)년 4월 어느날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최홍희선생을 만나신 대단히 기쁘다고 하시면서 민족의 자랑인 태권도를 더욱 발전시키고 여러 나라들에 널리 보급할데 대하여서와 태권도를 가지고 조국통일사업에 적극 이바지할데 대해서 가르쳐주시었다.

태권도로 자기의 삶을 애국으로 빛내이도록 믿음을 주시고 활력을 부여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을 받아안으며 그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아버지장군님의 가르치심은 그대로 선생의 운명과 태권도발전의 활력소가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79(1990)년 1월 어느날 언제인가 최홍희선생이 조국에서 태권도관을 지어주었으면 하는 희망을 제기한데 대하여 상기시키면서 평양시건설계획에 태권도관건설을 포함시키도록 하시고 평양시의 가장 좋은 자리에 규모도

크고 웅장하게, 또 형식도 독특하게 짓도록 구체적인 건설방향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었다. 뿐만아니라 태권도관이 다 건설되었을 때에는 태권도인들의 한결같은 소망을 받아들이시어 《태권도전당》이라는 친필도 써주시었다.

하기에 그는 생전에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조국에 와서 흠 한숨 닦았습니까, 나무 한그루 심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조국에서 해외동포들에게 불과한 저를 알아내세워주고 태권도전당을 지어온 나라가 태권도를 할수 있도록 하였으니 태권도를 만든 사람으로서 참으로 백골난망이유시다.》

위대한 장군님의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무한대의 사랑과 은정은 선생과 부인이 조국에서 맞은 생일에도 뜨겁게 미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현지도오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잊지 않으시고 그들부부를 조국에 불러온 정어린 생일상을 잘 차려주도록 또다시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었다.

최홍희선생이 조국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에게 나라의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전해주시어 하겠다고, 최홍희선생은 생일을 맞는 오늘까지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뜨거운 존모의 마음을 지니고 조국과 민족의 편에서 정통적인 우리의 태권도를 발전시키고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약하겠다고, 최홍희선생이 조국에서 생일을 맞는것만큼 뜻깊고 의의있게 쇄도록 하며 그의 조국체류나날이 의의있고 값있는 것으로 되게 잘 조직해주며 최홍희선생이 아무쪼록 건강장수하기를 바란다는것을 전해야 하겠다. 가슴뜨거운 교시를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최홍희선생이 인생의 말년에 불치의 병에 걸렸다는것과 그가 치료를 받아도 조국에서 받고 수술을 해도 조국에서 하고 죽어도 조국 땅에 묻히고싶어한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최홍희선생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잘 보살펴주어야 한다 하시었다. 그리고 최홍희선생을 하루속히 조국에 데려와 유능한 치료진의 치료를 받도록 해

달한 조치를 취해주시었으며 그의 병상태, 기분상태를 구체적인 자료로 받아보고 전문의로인한 협의회를 즉시 조직하도록 하여 주시었다.

또한 그의 부인의 건강상태도 좋지 않는데 치료문제가 제기되면 최홍희선생이 치료를 받는 병원에서 함께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 주시었다.

주체91(2002)년 6월 15일 최홍희선생이 84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을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의 유해를 애국렬사릉에 안치하도록 하시고 그의 장례식을 잘할데 대하여 간곡한 교시를 주시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잘 돌보아줄데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가르쳐주시었다.

정녕 곡절많은 운명의 파도에 밀려 여기저기를 헤메다가 인생말년에 참다운 조국의 품, 위인의 품에 안겨 비로소 진정 한 삶의 길, 애국애족의 길을 찾고 태권도와 함께 삶을 빛내이게 된 최홍희선생이었다.

리명진



태권도강습을 진행하는 국제태권도련맹 최홍희총재

배태원, 그는 공화국의 품에 안겨 장편소설 《갑오농민전쟁》을 쓴 재능있는 역사소설가이다.

그는 땅국의 비운이 절제 드러트던 1909년 12월의 추운 겨울날 서울의 어느 한 약재상의 가정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부친의 덕으로 빈손을 뺏지 않으며 성장하였고 일본에 건너가 류학까지 하게 되었다. 그러나 굴욕적인 민족적모욕과 가증되는 학비 등으로 그는 중도에서 사각모를 벗어던지고 귀향길에 오르게 되었다.

고향땅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부터 갈마드는 문학에 대한 야릇한 호기심은 그의 눈길을 그냥 뒤편으로 돌려 세웠고, 사실 14살때 벌써 《입학》이라는 작품으로 호평을 받았던 그는 그후에 플스토이, 두마와 같은 이름난 작가들의 소설을 시간가는줄 모르고 탐독하였다.

그는 종래 문학의 길에 뛰어들었고 1930년 잡지 《신생》 10호에 처녀작인 단편소설 《수염》을 발표하였다. 첫 작품에 대한 평가가 그만하면 괜찮았다.

이때부터 그의 본격적인 창작활동이 시작되었다. 배태원은 24살 나던 해인 1933년에 문학친목단체인 《9인회》의 한사람으로 활동하면서 다음해에 단편소설 집 《구보세의 하루》를 발표하였고 1935년에 첫 장편소설 《청춘순》을 내놓는데 이어 여러편의 장편소설들을 연속 발표하였다. 작품들은 모두 섬세한 세부묘사와 진지하고 치밀한 구성, 세련된 언어구사료 하여 다른 소설들에서 보기 힘든 높은 예술적기교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배태원은 자기의 작품들에 대해 점점 신심을 잃기 시작하였다. 자기의 작품이 부러조아문단에서는 인기가 있었지만 근근이대중속에서는 좋은 반향을 들을 수 없었고 지어 맹담할 정도로 차별되고있었기때문이

였다.

자흠 질어가는 변민속에서 그는 이웃나라의 역사소설과 민족고천들도 번역하고 《홍길동전》, 《리순신장군》과 같은 역사소설들을 쓰기도 하면서 새 길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그의 창작에서 하나의 전환점을 가져다준것은 홍명희의 장편역사소설 《림격정》이었다. 당시 장편역사소설 《림격정》에 대한 반응이 대단했다.

(나는 지금껏 무엇을 써왔는가.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하여 떨쳐나선 인민의 지향을 외면한채 가정집사에 빠져 돌아가는 뭉툭이들을 그려왔구나. ...

그래, 나도 단순한 역사소설이기에 전에 짓들린 겨레의 녀고 민족의 존엄에 대한 책을 쓰자. 이 걸만이 진정한 애국자로 사는 길이며 참된 문인이 되는 길이다!)

그때는 벌써 그의 나이가 40대로 치달고있었다. 하지만 조금도 낙심하지 않았고 얼마후에는 장편역사소설 《임진왜란》을 신문에 발표하였다.

그런데 소설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은 혹평에 가까웠다. 그는 아이들에게 큰소리로 한번 못 칠 정도로 온순하고 착한 마음씨를 지닌 사람이

였지만 자기가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굴함없이 뚝고나가는 강인한 기질의 소유자였다.

그는 장편소설 《림격정》을 읽고 또 읽으며 사색을 거듭하였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전쟁의 우렁찬 웨침이 삼천리강산을 뒤흔들었다.

그러나 남조선에 기여든 외세의 군화발에 짓밟혀 해방의 기쁨으로 들끓던 서울의 거리거리에는 또다시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정그러운 양기문화가 오물처럼 범람하였다.

그속에서 진정한 역사소설을 쓴다는것은 허황한 꿈에 불과했다.

배태원은 당초의 계획을 일단 접어놓고 《략탈자》를 비롯한 여러편의 장편소설들을 발표하였다.

1950년 6월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나자 참학자들의 무력침공을 격퇴하고 파죽지세로 남진하는 인민군대에 의해 해방된 서울에서 배태원은 난생처음 인간다운 생활을 체험하였다.

하기에 그는 조국안에 준엄한 시련이 닥치면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에 서슴없이 북해길에 올랐고 용약 중군작가가 되어 인생의 새 출

발을 하였으며 그 나날 증편소설 《조국의 기발》, 《조국의 품》 그리고 많은 전투실화들을 써서 인민군군인들과 후방인민들을 크게 고무하였다.

그 자신이 말한바와 같이 해방전과 남조선에서의 창작생활은 《사회현실과 동떨어진 순수문학의 상아탑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다.

전승의 축포가 터져오르자 그는 당시 사회과학원의 역사연구소와 중앙도서관, 대학의 도서판들, 역사박물관, 민속박물관, 모란봉과 대성산, 개성과 해주, 구일산의 역사유적들과 깊은 인연을 맺고 피라는 노력을 기울여 역사소설을 창작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을 뒤임없이 연구하였다.

이렇게 진정한 역사소설의 첫 자욱을 맨 그는 편이 어 다음 소설창작에 달라붙었다.

하여 1965년에 장편소설 《계명산천은 밝아오느냐》 1, 2부를 발표하였다.

소설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은 대단했다. 수십통의 편지가 매일같이 날아왔고 어떤 독자는 너무 흥분되어 밤늦게 작가의 집에 찾아오기까지 했다.

흔히 소설가들은 장편소설을 하나 쓰거나면 바다물을 한번에 통째로 들이마시거나 같다고 말하곤 한다.

(아, 이 멋에 피를 말리우고 뼈를 깎으며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닌가.)

얼정으로 불라던 그에게 아꼴같은 시기가 닥쳐왔다. 서울에 있을 때 앓았던 병으로 몸이 낮아졌던 시력이 끝내 치명적인데까지 이르렀던것이다. 그의 시신경은 200자원고지에서 단 한자밖에 알아볼수 없을 정도였다. 급격히 낮아지는 시력장애로 그는 원래의 창작계획을 바꾸어 《갑오농민전쟁》 1,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위하여

남조선인민들은 나라의 분리가 시작된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자주, 민족, 통일을 위한 투쟁을 즐기차게 벌여왔다.

외세의 부당한 지배와 파쑈독재, 민족분열의 어둠을 끝장내고 새 정치, 새 생활을 안아오려는 남조선인민들의 의로운 투쟁은 공화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 자주성을 지지하는 세계인

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받았으며년대와 세기를 이으며 계속되여온 그 굴함없는 투쟁속에서 자주통일의 기관차는 힘차게 앞으로 내달려왔다.

본사편집국은 이번호부터 조국통일운동사에 아로새겨진 남녘겨레의 투쟁의 발자취들을 더 들어본다.

이 끝난 다음 10년동안 쏘, 미, 영, 중 4개국 《신략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일토당토않은 계산을 들고나왔다. 이 제안은 사실상 해방된 조신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자는것이나 같은것이였다.

그러나 미국은 모스크바3국위상회의에서 저들의 제안이 거부되어 조선을 식민지화하려는 야망을 실현할수 없게 되자 칠면피하게도 모스크바3국위상회의결정이 조선에 대한 《신략통지》를 위한 결정인듯 외곡선전하면서 조전에 대한 《신략통지》를 위한 결정을 반대하는 《반략운동》을 일으키게 하였다.

칠면피에서 친미파로 변신한 남조선의 매국세력은 《반략》의 구호밑에 군중을 동원해뵈려고 《반략국민총동원위원회》(1945년 12월), 《민족통일총본부》(1946년 6월) 등을 조작하는것을 예정한것이 이 결정의 진의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남조선의 민족반역세력은 이 결정에서 특히 후견에 관한 개념을 《신략통지》라고 제멋대로 해석하면서 결정을 반대하는 《반략》소동에 매여달리었다.

원래 조선에 대한 《신략통지》안은 미국이 대조선정책으로 제기한것이 미국을 그것들 때해한회담과 알파회담에서 거듭 주장하여왔다. 모스크바3국위상회의에서도 미국은 조선에서 쏘 미량군이 군정을 실시하며 그것

에는 로동자들이 서있었다.

1946년 1월 3일 로동자들을 선두로 한 30만명의 각계층 서울 시민들은 《진보적인 인민정권을 세우자!》라는 프랑카드를 앞세우고 거리에 떨쳐나섰으며 서울운동장에 모여 《민족통일, 자주독립총성서울시민대회》를 가지었다.

모임은 통일적민주주의립시정부를 세우기 위한 한결같은 투쟁결의를 시위하였다.

군중들은 《우리의 살길은 원칙에 입각한 민족통일전선의 완성성이고, 자주독립국가의 완성에 있다.》고 제치며 대중적진출의 막을 올리였다.

파쇼경찰의 폭압을 박차고 통일적민주주의립시정부수립을 지지하는 군중시위와 집회는 군산, 대구, 인천, 광주, 화순, 영월, 부산을 비롯한 주요 지방도시와 산업지대로 확대되어갔다.

남조선의 근로대중은 8.15후 처음으로 맞이한 3.1운동기념일과 5.1절도 《반략》책동을 반대하고 통일의 앞길을 열기 위한 양양된 분위기속에서 열거면서 수십만군중이 참가한 대규모집회와 집회를 벌리었다. 통일정부수립 등의 구호밑에 벌어진 이러한 대규모군중대회는 8월까지만 해도 8차례에 달하였다.

《반략》소동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운동은 외세와 그 추종세력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본사기자 김영진

불순한 《반략》소동을 반대배격하여

이 끝난 다음 10년동안 쏘, 미, 영, 중 4개국 《신략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일토당토않은 계산을 들고나왔다. 이 제안은 사실상 해방된 조신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자는것이나 같은것이였다.

그러나 미국은 모스크바3국위상회의에서 저들의 제안이 거부되어 조선을 식민지화하려는 야망을 실현할수 없게 되자 칠면피하게도 모스크바3국위상회의결정이 조선에 대한 《신략통지》를 위한 결정을 반대하는 《반략운동》을 일으키게 하였다.

칠면피에서 친미파로 변신한 남조선의 매국세력은 《반략》의 구호밑에 군중을 동원해뵈려고 《반략국민총동원위원회》(1945년 12월), 《민족통일총본부》(1946년 6월) 등을 조작하는것을 예정한것이 이 결정의 진의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남조선의 민족반역세력은 이 결정에서 특히 후견에 관한 개념을 《신략통지》라고 제멋대로 해석하면서 결정을 반대하는 《반략》소동에 매여달리었다.

원래 조선에 대한 《신략통지》안은 미국이 대조선정책으로 제기한것이 미국을 그것들 때해한회담과 알파회담에서 거듭 주장하여왔다. 모스크바3국위상회의에서도 미국은 조선에서 쏘 미량군이 군정을 실시하며 그것

굴함국의 품에 안겨

장편소설 《갑오농민전쟁》을 쓴 재능있는 작가



배태원 선생



장편소설 《갑오농민전쟁》

터만떠러 의식을 회복한 그는 자기의 소설창작을 위해 맡없는 정성을 다 기울여온 안해에게 《갑오농민전쟁》 제3부의 구성과 형상의도를 알려주었다. 그리고는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손목시계를 가리키었다.

비록 말은 못했지만 남편의 속깊은 심증을 충분히 읽을수 있었던 그의 안해는 말하였다.

《여보, 절 믿으세요. 장군님의 은덕을 잊지 않고 꼭 소설을 완성하겠어요.》

이렇게 되서 그의 안해는 남편의 실행이 기쁜 원고배낭을 메고 우선장착실로 떠나게 되었고 그로부터 2년후인 1986년 봄 장편소설의 제3부원고를 완성하였다.

배태원은 쏟아져나오는 눈물을 감장지 못하였다. 자기를 대신하여 그동안 술한 고생을 해온 안해에 대한 고마움의 눈물이었다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대배할 은덕은 은덕이 조금이나마 보답하게 되었다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로부터 몇달후 작가는 행복만 미소속에 눈을 감았다.

작가는 떠나갔지만 그가 생전에 그토록 바랬던 장편역사소설 《갑오농민전쟁》 제3부는 드디어 출판되었다. 책표지에 작가와 그의 안해 권영희녀성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있었다.

그가 세상을 떠난지도 10여년이 지난 주체87(1998)년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희미해져가던 배태원을 애국렬사릉에 안치하도록 하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사람들은 누구나 두번다시 살수 없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행복한 삶은 어떤것인가. 배태원선생과 같이 자기령도자의 기억속에, 인민들의 추억속에 죽어서도 영생하는 삶이 진정한 행복한 인생인것이다.

본사기자

외세추종과 배신으로 얻을 것은

《당국이 한 일이란 남북 합의리행을 미루어놓고 정세를 긴장시킨것뿐이다.》, 《세운으로 제 발을 묶어놓은 격이 되었다.》, 《스스로 무시를 자초하였다.》 ... 당국의 사대굴종적인 《대북정책》에 대한 남조선 각계층의 불만의 목소리이다. 앞에서는 그 무슨 《영화》와 《관계발전》을 운운하지만 돌아앉아서는 배신적 행위를 일삼고있는것이 바로 남조선당국이다. 남조선당국은 시대착오적인 동족대결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정세를 긴장시키

는 합동군사연습과 외부부러의 전략자세를 비롯한 전쟁장비반입에 집요하게 매달려왔다. 지난해에 벌어진 각종 합동군사연습들이 그 뚜렷한 실례로 된다.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의 명칭만 바꾼 《동맹 19-1》 합동군사연습과 《후반기 한미연합 지휘소훈련》, 《머시퍼 병가드》를 비롯한 합동군사연습들은 어느것이나 할것없이 조선반도의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뿐이 아니다.

무인기침투대응훈련, 《K-55》자형포살탄사격훈련, 《유사시》에 대비한 2019년 예비군훈련, 《울지태국》 연습과 《쌍봉》훈련, 《호국》훈련을 비롯하여 단독으로 벌여놓은 군사연습들도 마찬가지이다. 남조선당국이 얼마나 동족에 대한 뿌리깊은 적대감에 사로잡혀있는가 하는것은 그 누구의 《위협》을 떠들며 탄도로켓의 실사격훈련경기와 《대북대세》 유지, 《북방한계선》의 고수에 대해 떠벌이다 못해 공화국을 저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직》이라고 공공연히 뽐내면서 그 무슨 《초토화계획》이라는것까지 공개하며 호전적으로 높아냈던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남조선당국의 배신적인 행위는 외부로부터 첩담무장장비들을 끌어들이고 각종 전쟁장비들에 대한 개발도입을 다그쳐온데서도 뚜렷이 나타났다. 지난해에만도 외부로부터 각종 전쟁장비들이 반입되었으리라 믿어볼수 있을것이다. 또한 막대한 형세가 투입되었다. 지난해 남조선당국이 책정한 올해의 국방예산

한시바삐 격리시켜야 할 대결별자

남조선에서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대표인 황교안의 동족대결광기가 더욱 발작하고 있다. 얼마전 그가 《6.25전쟁 70주년 및 친안함 10주기 기념 국민문화사진전》이라는 데 나라나 공화국을 헐뜯는 발언을 뽐냈던것이 바로 그 증상의 하나이다. 개가 열두번 짖어도 개소리밖에 나들것이 없다고 황교안이 악을 쓰며 트레내는 소리란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동족대결말방뿐이다. 아마도 황교안은 《총선》을 계기로 보수세력의 지지를 얻어보겠다고 케케묵은

《안보》타령을 늘어놓을것이다. 그러나 이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별로 없다. 지금 은 남조선 땅이 《COVID-19》로 공포속에 잠겨있는데 여기에 동족대결을 조장하는 《안보》타령까지 늘어놓으며 불안만을 조장하니 민심은 황교안을 가리켜 《권력에 환장한 정신병자》,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할 대결미친개》라고 비난하며 저주하고 있다. 황교안이 《균기피》의 수단으로 리용할것이면 수만명중에 한명이 될정도로 희귀한 병이라고 하는 담마진(두드러기)이다.

두드러기는 일종의 알레르기 현상으로서 계절환경에 따라 발작한다. 그러나 동족대결알레르기로 전이된 황교안의 《담마진》은 시도때도없이 발작하고 있다. 이런것으로 하여 황교안은 《안보》라는 가시방망이로 매없이 몸을 굽지 않으면 어느 하루도 피로움을 참지 못하는 가보다. 동족대결알레르기란 인한 어지러운 독성물질만 내보내며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황교안이야말로 한시바삐 격리병동에 보내어 격리시켜야 한다는것이 남조선민심이다.

단결된 힘으로 투쟁할것을 강조

23일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가 지난해 미국대사관의 답을 넘어 기습투쟁을 단행한 4명의 학생들이 대학생진보련

합으로 보낸 옥중편지를 실었다. 편지에서 그들은 4월에 있게 될 《국회》의 원서건는 적폐세력과

민중개혁세력간의 투쟁으로 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적폐세력은 재집권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검찰, 언론

과 싸고 진보, 민주개혁세력을 공격하고있다고 그들은 밝혔다. 그들은 단결된 힘으로 투쟁할때만이 진보, 민주개혁세력이 승리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본사기자

박명성

본사기자 김응철

추악한 인간쓰레기들의 란동

최근 남조선의 극우보수 패거리들이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들을 연일 벌여놓고 광적인 추태를 부리고 있다. 전광훈을 비롯한 극우보수패거리들은 22일과 23일 《COVID-19》 전파를 막기 위해 사용금지가 선포된 광화문광장에 집회 《전염병사태때문에 집회를 중단하면 현 정권만 좋아진다.》고 고안했다.

이와 관련하여 신형강염병중앙임상위원회는 《COVID-19》로 진단받기 전에 다른 지역에 전파될수 있으며 일반적인 겨울철 독감기와 비교하면 사망률이 4배정도 높다. 따라서 증상이 없거나 경한 경우에도 비루스배출량이 상당히 많아 비루스전파가 가능하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남조선감염병전문가들도 무중상이거나 비교적 증상이 경하여 진단을 받기 전에 감염이 확실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언론들은 확진자가 늘수록 이들이 접촉한 사람수도 늘어 검사대상이 급격히 늘어날수밖에 없는 상례라고 하면서 전파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울것을 요구하였다. 보건학박 등 의학단체들도 긴급모임을 통해 대학에서 시작된 감염자의 급격한 증가가 억제될 때까지 종교집회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것을 자제할것과 감염병위험경보 단계를 현재의 《경계》에서 《심각》으로 조정해야 할것이라고 권고하였다. 남조선당국은 다른 지역에서의 비루스전파를 막기 위해 대구와 경상북도 청도지역을 감염병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서울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서울광장과 창계광장, 광화문광장의 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방역당국은 병원들안에서도 의료진과 직원들에게 이동을 중지할때 대한 조치를 취하였다. 지금 남조선에서 《COVID-19》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사망자가 늘어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도 남조선에서의 렉행정보수준을 높이고 실무적인 대책을 취하고있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남조선의 보수세력들만은 그 무슨 절호의 기회나 만난듯이 자랑말랑하고 있다. 본사기자

현실에서 보는 우화속의 《세 짐승》

세 짐승에 대한 우화가 있다. 며칠을 굶주린 송냥이, 시라소니, 여우가 먹을것을 찾아 해매던중 서로 힘을 합쳐 사냥도 같이하고 먹을것이 생겨도 똑같이 나누어 먹을것을 칠석같이 약속하고 길을 떠났다. 그런데 뜻밖에 생긴 잉어 한마리를 놓고 그에 눈독을 들인 세 짐승이 언제 그랬던가싶게 서로 제리속만을 채우려다 결국은 다 죽고만다는 내용의 이야기이다. 최근 남조선의 보수세력 내부에서 이번 《총선》을 계기로 《미래통합당》 대표 황교안과 전 《자한당》 대표 홍준표, 《자유동일당》 대표 김문수의 싸움이 이 우화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여기저기서 민심의 배격과 규탄으로 당장은 경각에 이른 저들의 목숨부터 부지하기 위해 힘을 합치자고 부른 보수세력들이건만 지어먹은 마음 사를 못 간다고 역시 본성은 송길수 없는 저 먹이감을 놓으려는 누구도 양보하려 하지 않는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상대방을 매장시켜야 다음기 《대선》 후보라는 먹이감을 차지할수 있다는것이 바로 이자들의 공통된 속구냐

이다. 《총선》에서 부산, 경상남도지역 선거지휘를 맡겨달라고 요구하는데 대해 자칫하다가 절수인 그의 몸값만 올려줄수 있다고 생각한 황교안은 그를 기어이 《협치》에 내몰려 하고있으며 저와 같이 친박근혜세력을 지지 기반으로 하고있는 김문수도 견제하면서 《자유동일당》과의 통합은 뒤로 밀어놓고 있다. 당권을 틀어쥐고 휘두르면서 먹이감을 제가 다 차지하려고 으르렁거리는 음흉한 송냥이의 본성을 드러내놓은 황교안이다. 그와 반변에 《황교안은 말 그대로 정치초년생이다.》, 《당을 위해 헌신한것이 아무것도 없다.》, 《정치를 안하던 안쪽지 황교안을 위해 출주하지 않겠다.》고 독설을 쏟아내며 정면에서 황교안에 대한 경멸과 반감을 표출적으로 드러내는 홍준표는 그야말로 역시 본성은 송길수 없는 저 먹이감을 놓으려는 누구도 양보하려 하지 않는것이다. 황교안주도로 이루어진 보수통합놀음에 대해 《108%의 자한당이 7명의 류승민 탄핵세력에 의해 기발을 내리고 자살했다.》, 《잃는게 더 많을것이다.》고 짝아



내리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을 내세워 반 황교안 여론을 펴고있던 김문수는 또 어떠한가. 여기저기 눈치만 보다 황교안에게 밀려 《자한당》에서 꾸어온 보리차루취급을 당하다 뒤흔치던 김문수가 《태극기세력》에 기여 들어가 이제 황교안과 《미래통합당》을 향해 후보단일화, 전략적연대를 한다고 떠든다. 조직으로 변하는 김문수의 이러한 행동에는 박근혜를 신주모시듯 하는 극우보수세력을 업은 자기에게 《총선》에서 일정한 양보하라는 무언의 암시가 깔려있다. 역시 《살줄 아는》 교활하고 감쪽한 여우의 풍토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하였다. 그리고보면 황교안이나 홍준표, 김문수는 먹이앞에서는 하나같이 양보를 모르는 우화속의 《세 짐승》을 닮았다. 본사기자 한복순

《송냥이》 황교안은 홍준표를 《협치》로 때려물고 그 《시라소니》 홍준표는 도살장에 내몰리는 돼지새끼같이 네다리를 뻗쳐내고 울부짖고있으며 송장 내리는 세력에 몸을 가리운 《여우》 김문수는 송대에 오른 민중이마냥 기고만장하여 날뛰고있으니 우화속의 《세 짐승》과 다른것이 무엇인가. 비극은 먹이감 하나로 저들의 살점이 뜯기우고 풀이 깨어져 목숨이 경각에 달한꼴을 모르고있는것이다. 《세 짐승》의 운명은 뉘세 주어져있으니 문힐 자리마저 잃기 전에 조용히 그 자리나 찾아보는것이 어떠하겠지는. 먹이감을 위한 《세 짐승》의 란동극에 남북민심은 침울하고있으며 그러한 꼴볼꼴을 다시는 보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본사기자 한복순

남조선에서 《COVID-19》 감염자 계속 증가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27일 9시부터 16시사이에 《COVID-19》 확진자가 171명 더 추가되었다. 이로써 확진자는 총 1768명으로 늘어났다. 추가된 확진자 가운데 대구, 경상북도지역의 환자는 139명(대구 115명, 경상북도 24명)이다. 경기도와 경상남도에서 각각 7명, 울산과 충청남도에서 각각 5명, 부산에서 3명, 전라북도에서 2명, 서울과 대전, 충청북도에서 각각 1명씩이다. 사망자는 총 13명이다. 본사기자

신형감염병중앙임상위원회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COVID-19》로 사망한 11명중 7명은 청도대남병원의 장기입원환자로서 건강상태가 매우 나빠졌다고 하였다. 남조선은행 총재는 이날 《COVID-19》로 말미암아 남조선에서 한분기동안의 경제가 하락할 전망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감염병사태보다도 충격이 클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본사기자

《다게시마의 날》 행사는 늑음을 버려놓았다.

《다게시마의 날》로 말하면 일본이 독도를 저들에게 《현인》시켰다는 1905년 2월 22일을 《기념》한다는 명목에 해마다 벌여놓을수 있는 광대국으로서 아베당은 이번에도 그 《공식성》과 《적법성》을 내외에 인식시켜보려고 여기에 정부관료들 파견하여 크게 《기념》하도록 하였다. 독도가 저들의 《령토》라는 억지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일련속의 간특하고 집요한 술책의 표현이라 해야 할것이다. 알려진것처럼 일본반동들은 해마다 발표하는 외교청서, 방위백서들에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강도적문구들을 계속 쏘아박고 있다. 또한 초, 중등학교 교과서들에 독도가 옛날부터 《일본땅》이고 불법 점거되어있다고 외곡되어 서술하여 진실만을 알아야 할 순진한 아이들에게 령토맹창의식을 주입시키고 있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일본당국은 년초부터 《독도는 령사적사실에 비취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고유령토》, 《다게시마문제해결은 주권에 관한 중요한 과제》라는 낱강도적캐변을 늘어놓았으며 도쿄의 한복판에 그 무슨 《령토주권전선기》라는 것을 새로 확장하여 개관하고 독도가 저들의 땅이라는것을 합리화해보려고 책동해왔다. 김영병

《나나짚아편》 작곡자 5명 전원 영구 징역 5년

이것은 우리 민족의 신성한 령토와 주권에 대한 용납 못할 침해행위이며 령사적 정의와 진실에 대한 란혹한 외곡유린이다. 독도는 반만년의 유구한 령사를 자랑하는 우리의 민족사와 더불어 한치도 떼여놓을수 없고 누구도 넘볼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령토이다. 독도를 처음으로 발견하고 국토에 편입시켰 것도, 국제법적요구에 맞 고 독도영유권을 확인하고 내외에 أعلن한지 선포한것도 바로 우리 민족이다. 이에 대하여 세인이 인정하고 이를 립증할수 있는 령사적사실자료들과 법률적근거들은 차고넘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적이고양이처럼 슬그머니 조작한 《시내헌고서》 따위를 내뿜으며 독도가 저들의 령토라고 생떼를 쓰는 일본의 정치세력들이야말로 세상에 보기 드문 후안무치의 족속들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일본이 목갈리게 채워대는 《독도영유권》 주장은 명백히 조선반도해침의 전구곡이며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이 실현하겠다는 나팔소리이다. 과거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천인공노할 만행은 틈틈이 기회에 대해 유당 사죄와 배상을 할대신 신성한 우리 령토인 독도를 가로라하고있기 위해 미저날뛰고있는 일본 의 무분별한 책동은 세인의 규탄을 받고 있다. 김영병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 남조선으로부터의 항공편 승객들에 대한 입국 제한, 차단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COVID-19》 감염자가 급격히 늘어나는것과 관련하여 여러 나라와 지역에 나 남조선으로부터 자기 나라로 들어오는 비행승객들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조치들을 령속 취하고 있다. 벨라루스에서는 24일 대구에서 출발한 령객기승객 20명전원을 격리시켰으며 중국 홍콩 특별행정지구, 이스라엘과 바레인, 요르단 등 7개 나라와 지역에서는 25일부터 남조선에서 오는 항공편 승객들의 입국을 완전히 차단하였다. 오만과 카타르, 미크로네시아는 승객들에 대한 격리

시각을 정하였으며 쿠웨이트 항공당국은 남조선에서의 자기 나라 비행기운행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 타이, 까자흐스탄, 우간다 등에서도 격역을 강화하고의 전사들에 대해서는 격리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의 베이징, 산둥성 위해시, 길림성 등지에서도 비

행기를 승객전원을 상대로 격리관찰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남조선에서의 령행정보수준을 최고등급인 3단계로 올렸고 영국과 싱가포르 등은 자기 나라 국민들에게 남조선의 대구와 청도 령행을 금지할것을 권고하고 있다. 본사기자

항공을 군사적으로 봉쇄하는 동시에 《한일의정서》를 반대하는 조선봉건정부의 고위관리들을 랍치, 구금하는 후안무치한 행위도 거리낌없이 감행하였다. 일본은 이와 같이 사기, 협박, 강권 등 각종 음모적이며 낱강도적인 방법으로 《한일의정서》를 조작하였다. 《한일의정서》는 《보호》의 간관밑에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기 위한 법적 《담보》를 마련하려는 일본의 범죄적기도면에 강압적으로 조작된 파렴치한 칙령 문서였다. 그후 일본은 《한일의정서》를 기틀로 하여 1905년에는 《울사5조약》을, 1910년에는 《한일합병조약》을 낱조하고 조선을 완전히 식민지로 전락시켰다. 《한일의정서》의 조작과정은 일본이 조선을 강점하기 위해 얼마나 악랄하게 날뛰었다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산 증거로 된다. 본사기자 주광일

검출수 없는 일본의 과거죄악

비법적인 《한일의정서》를 조작한 일본의 죄행

일본의 지시와 명령을 받아 들이지 않았던 《조약》 위반으로 되며 그에 따라 일본은 강권을 발동하여 조선을 완전히 점령할수 있다는것을 의미하였다. 또한 《의정서》에서 일본이 《군사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때에 따라 수용할수 있다.》고 규정하였는 조선을 일본의 주권하에 예속시킨다는것을 말해주고 있다. 《한일의정서》 제1조에는 《대한제국정부는 대일본제국정부를 확신하고 시정의 개신에 관한 그 충고를 받 아들일것이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조선을 일본의 식민지로 규정한 침략적조항이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조선이

요하게 날뛰었다. 1903년 일본외무대신은 조선주제 일본공사 하야시에게 《일한간의 비밀조약에 관한 건》이라는 비밀지령을 주었다. 뒤이어 일본정부는 《각의》에서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통치하는것이 기본이지만 명목상으로는 《보호적인 조약》을 체결하는것이 가장 편리하다는 내용으로 된 《조선침략안》이라는것을 꾸며내었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군사적침략과 강점통치용어를 《보호》의 외피를 씌운 《외교문서》 조작의 수법으로 실현하려는 검은 속심으로 부터 출발하였것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교활한 책동은 조선봉건정부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일본은 방향을 바꾸어 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을 선명시켜서 《한일의정서》를 조작하기로 하였다. 일본은 1904년 2월초 미리 편성해놓았던 《파견대》에 출동명령을 내리었다. 이에 따라 일본의 파견대는 비밀리에 사해보관함을 출발하였다. 서울에 도착한 일본침략군선발대는 위협적인 군사적행동을 감행하기 시작하였다. 당시의 도서 《매천야곡》은 일본침략군의 군사적침략행위와 관련하여 《왜군이 인천에서 서울에 들어온것이

일본은 이와 같이 사기, 협박, 강권 등 각종 음모적이며 낱강도적인 방법으로 《한일의정서》를 조작하였다. 《한일의정서》는 《보호》의 간관밑에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기 위한 법적 《담보》를 마련하려는 일본의 범죄적기도면에 강압적으로 조작된 파렴치한 칙령 문서였다. 그후 일본은 《한일의정서》를 기틀로 하여 1905년에는 《울사5조약》을, 1910년에는 《한일합병조약》을 낱조하고 조선을 완전히 식민지로 전락시켰다. 《한일의정서》의 조작과정은 일본이 조선을 강점하기 위해 얼마나 악랄하게 날뛰었다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산 증거로 된다. 본사기자 주광일

《나나짚아편》 작곡자 5명 전원 영구 징역 5년

≡ **자력갱생을 변형의 보검으로 들어쥐고** ≡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지퍼주신
대고조의 봉화

주제97(2008)년 12월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의 노동자, 기술자들을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선봉으로 세워서 97년 12월 12일 김정일장군님께서 우리 인민의 정신력을 총발동하는 것, 이것이 강성국가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새겨서 지퍼올리기 위한 기본방도이라고 하시면서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지퍼올려야 한다고 교시하시었다.

혁명의적대고조의 봉화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지퍼올려야 한다!
 여기에는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자력갱생의 정신을 이어가야 하며 그 정신, 그 위치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가야 할 길을 어떻게 하든 위대한 장군님의 뜻이 담겨져있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날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라는 구호를 더욱 높이 들고나가야 하며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에 더욱 억세어진 자력갱생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강성국가건설을 하루빨리 앞당겨나가야 한다고 호소하시었다.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대고조의 봉화를 지퍼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경제강국건설의 모든 전선들 특히 전력, 기계, 채취공업부문에 대고조의 불길의 새 차가 타오르게 하시었다.

주제98(2009)년 1월 초 원산청년발전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기를 팡팡 생산하고있는 1호, 2호발전소를 오랜 시간에 걸쳐 돌아보시면서 안전정년발전소를 비롯한 여러 수력발전소들이 일떠선데 이어 원산청년발전소까지 완

공됨으로써 강원도에 강력한 수력발전기지를 형성하게 되었다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강원도인민들은 눈물겨운 악전고투를 벌려 무에서 유를 창조한 자력갱생의 선구자들이며 불굴의 투사들이라고, 도안의 일꾼들과 인민들이 발전조건과정을 통하여 높은 정신클의 소유자, 자력갱생의 선구자들 되었다고 그보다 더 크고 귀중한 재부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원신의 자욱이 있어 레성강과 회천, 성천강과 금진강의 발전소들을 비롯한 수많은 발전소들이 자력갱생의 창조물들로 거연히 솟아오를 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기계공장이 현대과학기술에 토대하여 경제강국건설에서 요구하는 제품들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만들어 내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시었다.

라고 신심에 넘친 어조로 교시하시었다.

은 나라에 자력갱생의 정신에 기초한 대고조의 봉화가 새겨져 타오르는 속개 통성과 락원을 비롯한 기계공장들에서는 대형압축기와 대형산소분리기, 굴착기들을 비롯하여 현대과학기술에 토대한 기계제품들이 연이어 생산되었다.

사회주의경제는 자기의 힘과 기술뿐 아니라 자체의 원료와 연료에 의거할 때 더욱 힘있게 발전하게 된다.

주제100(2011)년 10월 중순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청정년영농광산을 찾아주시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시험생산한 마그네사이트가 코크스 생산량 마그네사이트보다 품질이 더 좋다고 하시며 이것이라고 하시며 이번 대청정년영농광산 일꾼들과 로동계급이 당의 요구대로 코크스와 리튬합금이 아니라 코크스는 죽었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 주시었다.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비길수 없는 대단한 성과라고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지퍼주신 대고조의 봉화속에 무산광산련합기업소와 경덕광업련합기업소, 재령광산과 해산청년광산 등 곳곳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어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경제발전을 위한 든든한 도약대를 마련하시기 위하여 세월의 눈비를 다 맞으시며 쉬임없이 걸으신 길.

이 길이었기에 사회주의 건설의 도약대가 튼튼히 마련될수 있었고 그 길에서 공화국인민들은 자력갱생의 선구자들로 더 억세게 자라날수 있었다.
 본사기자 김준경

오늘날 지식경제시대의 국력은 무엇에 의해 좌우되는가. 다름이 아닌 과학기술인재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다면 과학기술인재가 많은 나라가 강대국 나라로 되는가.
 리운을 찾아 방황하는 《황금나비》들이 인류에게 재난을 가져다주는 불행의 화근으로 되고 나아가서 재능있는 인재의 꿈을 모독하는 것을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순결한 랑심과 미덕으로 과학기술이라는 등불에 밝은 빛을 더해주며 사회적 진보와 발전에 참담해하지 않는 인재들이 바다를 이룰 때만이 그것이 국가의 강력한 현실이 된다. 그리고 공화국의 현실이 보여주고 있다.

연제인이 조선에 체류하면서 어느 한 공장의 야코블 산합성공장을 돌아본 뒤의 한 학자는 자기의 소감을 이렇게 회상하였다.
 《감격 놀랐다. 오늘 세계를 휩쓰는 인재들만은 국적불명의 인재들을 무수히 낳고 있지만 아무리 황금나비를 안겨준대도 생명을 내내야 하는 이런 모험은 조만간 켜켜이 쌓여가는 것이 보편적인 실리이다. 현대 이런 위험천만한 공적개발을 시도한것만도 경이적인데 단 석달만에 단반성공한걸 보면 이 나라 과학자들의 정신세계는 서방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측정할수 없는 심비한 우수세계이다.》

그도 그럴것이 발전된 경제력을 자랑하는 나라에서도 이 공적개발과정에 우발적인 실수라도 빚어지는 경우 단지 실패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참변으로 번져지는 것으로 하여 남의 조종체계를 들여다 봤지만 운영과정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엄청난 인적, 물질적피해를 당하였던 것이다.

인간의 진가는 삶과 죽음이 판가리되는 침묵한 순간에 가장 명백히 판명되는 법이다.

공화국의 과학자들은 이렇듯 심장의 열도부터 다르다.

그들은 불타는 애국의 열정과 비상한 두뇌로 적대세력들의 제재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창조물들을 개발하고 있다.

길중에서도 제일 험난한 것이 초행길이라 했다. 남의 길을 따라가기는 쉬운 걸음걸음을 개척의 길이기.

하다면 그 무엇이 공화국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겁본

깨질 줄 모르는 등불

모방의 길이 아닌 험치 않은 개발의 초행길. 회생도 각오해야 하는 창조생명의 길로 떠날 것이다.

과학기술의 창조물들을 단순히 재능의 산물만 보는 관점으로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기적에 대하여 이해하기 어렵다. 재능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아이 감광판을 접을 수 없을 때, 새것을 찾는다 노릇을 쓸 때마다 과학자들의 마음속에 꼭 차오른 것은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은 흠방석에 앉혀주는 말이 있는데 우리의 과학자들이 금방식과 같은 집을 지어주어 거기서 생활하게 하시고 하시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손익 사색과 그리신 설교로 같은 밤, 이른 새벽에도 헤쳐가신 고행길이었다.

천하 유명한 준마도 장수를 만나야 하늘을 날라고

했다. 과학자들의 삶과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주시는 그의 열과 정이 어떤 어려움 시련도 불사신처럼 이겨낼 기질을 뽐내주는 주동력이었다면 무한대한 지식의 소유자로서 고귀한 소생의 다짐한 그 순간엔 앞길을 활짝 밝혀주는 광명이었다.

백두산진흥연구원에 가면

《부》에 대한 상식을 알려 주시며

인민들이 좋아하는 제품을 만들지만 그들의 기호와 취미, 나이에 따른 심리적특성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다 꿰뚫어 바라시는 그의 웅심깊은 뜻을 느낄 수 있다.

현지지도하시는 곳마다에서 권위있는 학자들이 놀랄물음도 재사롭게 제기하시고 오랜 시간 전문가들이 설명하는 문에도 한마디로 본질을 알려주시는 과학적인 분석력과 판단력은 그이께서도 통달하신 지성세계야말로 그 폭과 깊이에 있어서 무한대임을 실증해 주시었다.

나라의 전반사업을 이끄시는 것처럼 분망하신 속에서 세세적인 최신과학기술자들로 이르기까지 깊이 파고 드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원한 뜻을 누구보다 절감하는 등 주도적인 연구가 일어나는 조선...
 아득한 수평선까지 다가보아야 바다가 넓다는 것은 아는 것은 아니다.

창조의 영예를 높이 모신 북한은 과학자들이 순간도 깨질 줄 모르는 등불로 정면 돌파전의 개척로를 활짝 밝히고있기에 첨단과학기술개발, 선진문명개발국을 향한 공화국의 전진은 더욱 힘

겨우히 여기시며 힘들이 하면 용기를 북돋아주시고 지혜가 모자라던 눈을 띄워주시고 슬기를 안겨주시며 성공으로 이끌어주시는 길잡이 한 위인의 손길에서 공화국의 과학자들은 현세대에 지나야 할 능력과 자질의 높이를 깨달았고 도달해야 할 창조지의 기준을 새겨안았다. 그들은 과학기술이라는 등불로, 참신하고 알찬 과학기술성으로 앞을 밝히고 시대를 선도해나가고 있다.

하기에 조선의 쟁쟁한 실력가들에 대하여 세계과학계가 감복해하고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임성진 교수 비교적 젊은 나이에 권위있는 국제학술잡지에 50여 편의 논문 발표, 세계인명사전에 등록》, 《리과대학 연구사 제13차 국제단백질구조예측경쟁에서 50여개 나라 팀들을 모두 누르고 단연 1등 쟁취》, 《해외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에서 단독 발표, 혹은 제1저자로 발표하는 등 주도적인 연구가 일어나는 조선》...
 아득한 수평선까지 다가보아야 바다가 넓다는 것은 아는 것은 아니다.
 창조의 영예를 높이 모신 북한은 과학자들이 순간도 깨질 줄 모르는 등불로 정면 돌파전의 개척로를 활짝 밝히고있기에 첨단과학기술개발, 선진문명개발국을 향한 공화국의 전진은 더욱 힘

겨우히 여기시며 힘들이 하면 용기를 북돋아주시고 지혜가 모자라던 눈을 띄워주시고 슬기를 안겨주시며 성공으로 이끌어주시는 길잡이 한 위인의 손길에서 공화국의 과학자들은 현세대에 지나야 할 능력과 자질의 높이를 깨달았고 도달해야 할 창조지의 기준을 새겨안았다. 그들은 과학기술이라는 등불로, 참신하고 알찬 과학기술성으로 앞을 밝히고 시대를 선도해나가고 있다.

하기에 조선의 쟁쟁한 실력가들에 대하여 세계과학계가 감복해하고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임성진 교수 비교적 젊은 나이에 권위있는 국제학술잡지에 50여 편의 논문 발표, 세계인명사전에 등록》, 《리과대학 연구사 제13차 국제단백질구조예측경쟁에서 50여개 나라 팀들을 모두 누르고 단연 1등 쟁취》, 《해외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에서 단독 발표, 혹은 제1저자로 발표하는 등 주도적인 연구가 일어나는 조선》...
 아득한 수평선까지 다가보아야 바다가 넓다는 것은 아는 것은 아니다.
 창조의 영예를 높이 모신 북한은 과학자들이 순간도 깨질 줄 모르는 등불로 정면 돌파전의 개척로를 활짝 밝히고있기에 첨단과학기술개발, 선진문명개발국을 향한 공화국의 전진은 더욱 힘

겨우히 여기시며 힘들이 하면 용기를 북돋아주시고 지혜가 모자라던 눈을 띄워주시고 슬기를 안겨주시며 성공으로 이끌어주시는 길잡이 한 위인의 손길에서 공화국의 과학자들은 현세대에 지나야 할 능력과 자질의 높이를 깨달았고 도달해야 할 창조지의 기준을 새겨안았다. 그들은 과학기술이라는 등불로, 참신하고 알찬 과학기술성으로 앞을 밝히고 시대를 선도해나가고 있다.



과학기술전당

실리있는 부지 절약형 온실



클작물과 포기작물을 키우고 있다.
 적은 부지면적에서 공간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많은 남새를 생산하고 또 양어도 하고있다.

또한 호동들사이의 공간에 버섯재배장을 꾸려놓았는데 이로 하여 버섯생산과 함께 온도보장과 온실안의 탄산가스농도보장문제도 크게 풀림이 되고 해결되고있다.

한은경 온실책임자는 온실안에 식물의 빛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보충해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버섯재배장과 온실안의 공기를 서로 순환시켜 버섯재배에 필요한 산소는 온실에서, 남새생산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는 버섯재배장에서 보충하고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물고기배설물이 있는 수조의 물과 방출시킨

휴사제로 해결하고있다.
 평양일용품공장, 평양수지련필공장을 비롯한 일용품공장들에서 쓸모없이 버려지던 폐수자들을 재활용화했으며 합동건설공정에서는 공업 폐수물과 도시오수를 재자원이

은을 내는 재자원화
 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도 생산과정에 나오는 페가스와 펄, 파우치, 파우리를 비롯한 폐기물들을 재리용하는 공정을 확립하고 그 덕을 단단히 보고있다.

순천리구역에서는 설비들을 개조함으로써 년간 수십의 파고투를 생산에 리용할수 있게 되었을뿐 아니라 수직소요량의 많은 목도 유

수를 하고 흘러내리는 물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유기영양액교반탱크로 보내어 다시 남새생산에 리용하고있다고 한다.

온실에서는 온실환경관리 조종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조작과 조종을 자동적으로 진행하고있다.

통합조종실에서는 조종공이 액정현시기를 통하여 온실과 버섯재배장의 온습도와 탄산가스농도를 비롯한 환경감시와 조종, 유기영양액의 교환과 공급을 비롯한 영양액관리, 태양열물가열조종과 급수관리 등을 실시간으로 조종하고있다.

이렇게 하니 로력과 비용을 적게 하면서도 영양액 공급체계, 토양수분과 메기 수조의 수위에 따른 물공급체계, 온실의 온습도관리 체계의 과학화를 보장하여

식물성능은 질 좋은 거름으로, 파우리는 유리실로, 파수지는 대용원유로 전환시키고있다.

신도시에서도 재자원화를 단순히 폐기물, 생활오물을 회수리용하는 사업으로가 아니라 환경보호의 원칙에서 목적경제의 원리를 적극 추동하는 데로 지향시키고있다.

최근 국가과학원의 연구자들이 화학발전소의 갈탄연료를 재자원화할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현실에 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기술성과는 수력구조물건설에서 건설시공속도를 높이면서도 커다란 경제적 실리를 불수 있는것으로 하여 단련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도입단위들에서 호평

을 받고있다.
 미생물학연구소에서는 세계적으로 화석연료자원이 빠른 속도로 고갈되어가고 환경문제가 심각히 제기되고있는 데 맞게 새로운 메탄발효첨가제를 개발하였다. 새로운 메탄발효첨가제를 각이한 규모의 메탄발효장들에 적용해 본데 이의 하면 기어 낮은 열충조건에서도 연철합과 다름없는 효과가 뚜렷이 나타났다.

메탄가스생성시간과 생산량, 질적측면에서 많은 지표들이 개선되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이렇듯 많은 단위들에서 폐기물을 재자원화하기 위한 단련을 큰 관심으로 돌려 생산과 건설에 필요한 원료, 자재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홍범식

평양치과위생용품공장에서 부지가 제한된 조건에 맞게 건물은 온실농사를 받기하고 해비침들이 좋은 건물옥상에 무토양재배수경은

실 2층과 버섯재배장을 건설하고 운영을 잘해나가고 있다.
 이들이 도입한 무토양재배수경온실은 농작물을 자래우

의 여러 농장들에서 시험해본 결과 살충효과가 크고 농작의 소비량을 대폭 줄이면서도 높은 알파수출을 담보할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합동북도 청진시에 부품진 주안으로 유명해진 청진스레프공장이 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마감건재들은 다종 다색이고 색깔도 각이한데 보다 놀라운것은 많은 제품이 폐설물의 재자원화로 만든것이라는 데 있다.

부품진주안생산과정에 나오는 폐설물로부터 만든 진주암용유기포용판과 지붕재를 만들어 내는 폐설물에서 얻어낸 보온용미장재, 파우리를 가지고 만든 갖가지 장식용용도리유리들은 폐설물에서 얻어냈다고 하기에

수필

생기와 활력
 나무는 뿌리부터 늙고 사람은 다리부터 늙는다고 했다. 옳은 말이다. 생기와 활력은 젊음에 비례한다. 내 경우가 그러하다. 중학시절에 달리기를 하면 100m주로를 단숨에 뛰곤 했다. 대학시절에도 뽐을 차면 30~40m는 수월히 날아가곤 했다. 한창나이에 운동장기가 좋았기때문에 뛰던 일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젊음에 생기와 활력이 넘쳤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이제는 그건과 다르다. 하지만 사람들은 나더러 아직도 정력이 넘친다고 건강해보인다고 말하곤 한다.

일상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건강관리를 잘한다면 이럴테면 늘 걷기운동을 하고 명철이나나 휴식일에는 어김없이 정자를 하고 탁구도 치면서 신체를 단련하는것이 내 일상사로 되었다.

운동은 사람들을 젊게 할뿐 아니라 광범한 대중체육은 사회전반에 생기와 활력을 부여한다.

사회와 인민의 생기와 활력을 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운동을 장려하는데 깊은 관심을 기울이신다.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는 이의에서 내세우신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다.

그이께서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이 체육을 즐겨하고 온 나라가 체육열기로 들끓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체육은 인민을 위한 사업이며 인민들 자신의 사업이라고 하시며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야 전체 인민이 건강한 몸으로 조국보위와 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고 하시었다.

하며 명철이나 기념일, 휴식일과 같은 때에 체육경기과 체육회회를 다양하게 조직하며 사람들이 승부심을 가지고 체육활동에 적극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신 가르치심은 얼마나 세심하고 구체적인 것인가.
 가정에서도 아침체조와 체육오락을 비롯하여 건강진에 좋은 운동을 많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신 말씀에도 인민들이 건강하여 사회생활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시려는 웅심깊은 보살핌이 담겨져있다.

그이께서 이르신대로, 바라는대로 나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체육에 뛰어들었다. 일을 하면서도 운동시간을 가다리고 운동을 하고나면 새 기분으로 일에 전신 전력한다. 나뻐야 아니다. 체육을 즐기는 사람들이다 그러하다.

교정이나 직장, 주민 지구 등 할것없이 전사회적으로 일반대중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이다. 대중적인 체육활동, 사회적인 체육바람속에 전도유망한 체육인재들이 배출되고 나라의 체육기술도 부단히 발전하고있다.

국제무대에서 우승의 컵을 들어올리고 금메달을 따내조국의 영예를 빛내이는 우승보유자들이 늘어나고있다. 국가의 체육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증시이다.

나라의 체육을 발전시키고는 사회에서 생기와 활력을 부여하는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가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체육활동에 열성이다. 지난 체육의 날에도 가족 모두가 체육으로 윤택한 하루를 보냈다.
 식지도, 꺼지지도 않는 체육열기로 해서 사회에 활력이 넘치고 사람들의 생활은 기운차고 활발하다. 그것은 활력에 넘쳐 일하는 인민은 인민의 모습, 공화국의 모습이이다.

리설

《COVID-19》를 철저히 차단



공화국에서 《COVID-19》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봉사부에서는 《COVID-19》를 차단하기 위한 위생방역사업에 열



수감측정기를 적극 활용하고있다. 평양수산물백화점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벌여야 하는 특성에 맞게 봉사자들도 모두가 마스크를 끼고 봉사활동을 벌리고있으며 백화점의 입구에서 열수감측정기를 통해 손님들을 비롯한 출입자들의 체온상태를 철저히 관찰하고 해당하는 대책을 세우고있다.

3월은 봄기운이 완연해지는 시기이다. 3월의 절기로는 경칩과 춘분이 있다. 경칩은 24절기의 세번째 절기로서 대체로 양력으로 3월 5일이나 6일에 들고 네번째 절기인 춘분은 양력으로 3월 21일경에 든다. 경칩은 땅속에서 겨울을 나던 벌레들이 얼음이 녹고 우리가 울며비가 오는데 놀라 잠에서 깨어 꿈틀거리는데라는 뜻이다.

춘분은 겨울기운이 완전히 가셔지고 봄이 되는 절기라는 뜻인데 이때에는 낮과 밤의 길이가 거의 같아진다. 이 시기에는 새벽바람이 자주 불지만 날씨가 온화해지고 얼었던 땅이 완전히 풀린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경칩, 춘분시기가 오면 겨울나 흔적을 말끔히 가시기 위하여 울바지와 담장을 다시 손질하였으며 집안의 물도량도 정리하면서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였다.

이와 함께 봄같이도 하고 감자와 참깨, 봄보리, 수박과 오이같은 농작물들과 봉선화를 비롯하여 꽃모, 담배모, 나무모도 심으며 한해농사를 시작하였다. 이 시기 우리 선조들은 들에 파릇파릇 돌아나는 나물로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어먹으며 봄의 향취를 느끼었다.

대표적인 나물로 냉이와 달래를 들수있다. 냉이는 잘게 썰어 국을 끓여먹으면 발맛도 좋아지고 기력도 왕성해진다고 하면서 식생활에 많이 이용하였다. 달래는 식용뿐 아니라 약재로도 널리 쓰였다. 우리 선조들은 경칩, 춘분시기에 돌아나는 겨울채소도 하였으며 농사일의 흥을 돋구고 한해농사가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 농악놀이도 진행하였다. 올해의 경칩은 3월 5일, 춘분은 3월 20일이다.

영양의 절기와 민족

우리 민족의 옷차림 풍습

우리는 우리 민족의 좋은 옷차림 풍습의 하나이다. 깨끗한것을 좋아하는 우리 선조들은 자주 옷을 빨고 깨끗이 손질하여 단정하게 입고있다. 평천구역 위생방역소에서는 이병이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국가적인 대책을 강도높게 세워 위생에 맞게 한



제17차 전국조선옷전시회중에서 (2019년)

그러다보니 음력에서는 한해의 날수가 354.3705일로 되어 평년은 354일, 3년에 한번씩 355일로 윤년을 정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결과 음력과 양력사이에는 33년이 지나면 약 한해의 차이가 생겨나게 되어있었다. 하여 음력에서는 달수를 보고 그 달이 어느 계절에 속하는지 알수가 없었다.

고려가 태양의 돌레를 한바퀴 도는 기간을 365.2422일로 정하여 한해의 날수를 365일 그리고 4년에 한번씩 2월을 29일로 하는 윤달을 내어 366일로 정한 양력과 달리 달의 삭망주기에 맞추어 만든 음력에서는 큰달이 30일, 작은달은 29일로 하고있었다.

이러한 편향을 바로잡기 위하여 음력으로 만든 력서에서는 해마다 절기를 수정해야만 하였다. 바로 그러하기에 력서를 바로 만들어 계절을 정확히 밝히는 일이 력대의 모 든 나라들이 지극히 중시해 오는 국사중의 하나로 되고 있다. 하나 그것을 수정한 력서들을 해마다 내놓는것은 당시의 수학적지식을 가지고는 힘겨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강보가 바로 그 어려운 일감을 스스로 맡아나선것이였다.

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맡겨진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고있다. 국경을 끼고있고 향이 있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함경북도위생방역소에서도 위생방역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으며 평안북도인민병원에서는 《COVID-19》가 류입될수 있는 통로를 차단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고있다.

강계는하피복공장에서 《COVID-19》의 전파에 대처하여 마스크생산을 늘리고있으며 신천군 읍중합진료소에서는 호담당의사들의 책임성을 높여 《COVID-19》를 철저히 막기 위한 사업을 잘하고있다.

《팔만대장경》은 고려시기에 방대한 불교관계책들을 분류별로 묶어 출판한 불교총서이다. 고려에서의 대장경출판사업은 1011년부터 시작되었는데 1087년까지 70여년간에 걸쳐 6 000여종으로 된

나라내는 중요한 표징으로 삼아왔기때문에 음식을 만들거나 다룰 때 옷차림부터 깨끗이 하였다. 우리 민족의 옷차림풍습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수박하고 검소한것이다. 지나치게 사치하거나 얼얼떨떨하고 칙칙한 옷차림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밝고 우아한 자연색을 맞추어 단정하게 옷차림을 하였다.

우리는 우리의 방 안에서 입을 옷, 밖으로 나갈 때 입을 옷, 일할 때 입을 옷, 칠칠옷 등 때와 장소에 맞추어 옷차림을 적중하게 하였다. 그리고 늙은이들과 오사람들을 대할 때나 손님들맞을 때, 문밖에 나갈 때에는 언제나 자기의 옷차림부터 살펴보곤 하였다. 이렇듯 우리 민족의 옷차림풍습은 전반적으로 절절하고 단정함으로 특징지어진다.

강보가 먼저 파고든 일은 한해 24절기에 따르는 태양의 위치와 자리길에 대한 계산이었다. 그것만 바로 계산해내면 절기가 똑바른 력서를 내놓아 나라와 백성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었다.



신기할 정도였다. 그는 태사국에 들어온지 한달만에는 벌써 절기에 따르는 태양의 위치계산을 절반이나 해체할수 있었다. 강보가 오늘도 한창 열이 나서 계산을 하고있는데 어머니가 왔다는 기별이 전해졌다. 강보와 한마월에 사는 사람이 태사국을 지나가던 길에 그 소식을 전해준것이였다.

2019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7)

전도양양한 력기선수 오강철



4.25체육단 력기선수인 오강철은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그는 2018년에 진행된 제18차 아시아경기대회 력기

경기 남자 69kg급경기에 참가하여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지난해 2월 중국에서 진행된 2019년 국제력기연맹 세계경기대회에서도 그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중국, 러시아, 이탈리아, 메히코를 비롯한 많은 나라와 지역의 선수들이 참가한 2019년 국제력기연맹 세계경기대회 남자 73kg급경기에 참가하여 그는 은메달을 받았으며 추커울리기와 종합에서 각각 은메달을 받았다.

뿐만아니라 그는 2019년 아시아력기선수권대회 남자 73kg급경기에 출전하여 끌어올리기, 추커울리기와 종합에서 동메달을 받았다. 2019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로 선정된 그는 지금 앞날의 력기최강자가 될 야심을 안고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은 우리 선조들의 높은 출판인쇄기술수준을 보여주는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의 하나이다. 《팔만대장경》은 우리 선조들의 높은 출판인쇄기술수준을 보여주는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의 하나이다. 《팔만대장경》은 우리 선조들의 높은 출판인쇄기술수준을 보여주는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의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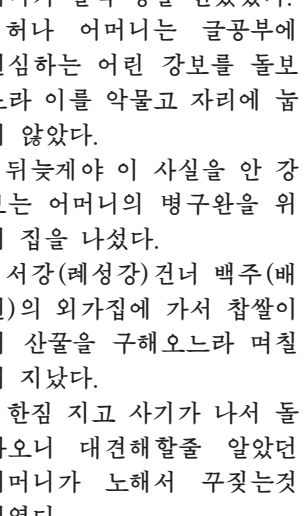


《팔만대장경》 판목과 인쇄본

급병을 치료할수 있는 인체의 혈

급병은 생명에 위태롭다. 급병을 치료할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1. 혈도. 인종혈을 누른다. 옷입술과 교차이에 있는 홈에서 위로 3분의 1부위에 있다. 엄지손가락끝으로 이 혈부위를 누르면 두드러지듯 약간씩 약하게 눌렀다 하면서 룰동적으로

고르게 누른다. 2. 머리04점. 태양혈을 주무른다. 이 혈은 귀바퀴앞면, 앞이마랑쪽 주 눈기바깥연장선의 옷부분에 있다. 손의 가운데손가락으로 시계바늘방향 혹은 반대방향으로 태양혈을 주물러 준다. 3. 변비. 천추혈을 손바닥으로 주물러준다. 이 혈은 배꼽에서 좌우방향으로 각각 2-3개의 손가락너비가 되는 곳에 있다. 손바닥을 혈위에 놓고 시계바늘방향으로 돌리면서 주물러주되 배안에서 열이 나는감이 날 정도로 한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식후에 이 혈을 주무르는것이다.



류관수 (1904-1920)은 1919년 3.1인민봉기때 일제를 반대하여 용감하게 싸운 혁명투쟁자였다. 3.1인민봉기 당시 서울 리화학당 고등과 1학년 에 다니였는데 서울에서 반일시위가 시작되자 16살의 어린 처녀로서 학생시위대렬의 앞장에 서서 적극 투쟁하였다. 3.1인민봉기의 열파로 학교가 폐쇄된 후 그는 교향사람들을 반일투쟁에 불러 일으키기 위하여 천안으로 내려갔다. 그는 천안을 비롯하여 연기, 청주, 진천 등지의 학생, 종교인, 유생들을 찾아다니면서 반일투쟁에 나서라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1919년 4월 천안읍 아내장터에 모인 군중앞에서 반일투쟁을 고취하는 선동연설을 한 다음 《조선독

립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면서 시위대렬에 뛰어 들었다. 시위군중과 일제 헌병들 사이에 류철적충돌이 일어나 아버지, 어머니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을 맞아 희생되었으나 조금도 굴하지 않고 군중의 앞장 서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놀들에게 체포되었다. 일제의 야수적인 고문앞에서 《내가 소문의 주모자이니 다른 사람은 모두 석방하라》고 강경히 주장하여나섰다.

그는 7년형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되었으나 옥중에서도 《조선독립 만세!》를 웨치면서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이에 겁을 먹은 일제는 야수적인 방법으로 그를 학살하였다.

사화 력서의 발전에 기여한 강보 (1)

1294년 초겨울 어느날이 었다. 해저물처럼 개경 황성안에 자리잡은 전리사(총렬왕때 리부와 레부를 합쳐 여기서 문관의 임명 및 해임과 외교 사업을 맡아보았다.)의 요란한 솜대문을 나서는 한 젊은이가 있었다. 갱뿔한 몸에 예뻐보이는 강보라는 이름은이가 이제 곧 유럽에서 19세기에 와서야 해결한 4차방정식의 풀이법을 발견하고 그것을 리용하여 당시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되고 정확한 력서 《수시력》을 내놓고 손쉽게 수정할수 있는 수표까지 만들어내어 세상을 깜짝 놀래울 수학자가 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지 못하고있었다. 강보는 아직 개경에조차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젊은이였다. 전리사의 대문을 나서 큰 길에 들어서니 강보의 마음은 하늘로 훨훨 날아오를것만 같았다. 그렇게 바라고바라내며 력서편찬과 천문관측을 맡아보는 태사국으로 가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아, 이날을 얼마나 기다려왔던가. 한달전에 있던 과거에서 급제하고 처음으로 벼슬길



이러한 편향을 바로잡기 위하여 음력으로 만든 력서에서는 해마다 절기를 수정해야만 하였다. 바로 그러하기에 력서를 바로 만들어 계절을 정확히 밝히는 일이 력대의 모 든 나라들이 지극히 중시해 오는 국사중의 하나로 되고 있다. 하나 그것을 수정한 력서들을 해마다 내놓는것은 당시의 수학적지식을 가지고는 힘겨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강보가 바로 그 어려운 일감을 스스로 맡아나선것이였다.